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2월 13일(주일) 제1380호



지난 2월 6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에 방문한 헌혈 버스.

온 누리와 사랑과 생명나눔!

‘생명나눔의 날’ 행사 2월 12~13일, 27일 교회 주차장 교회 홈페이지 사전 신청 및 교회 로비 현장 신청

헌혈로 이웃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2월 12일과 13일, 2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주차장으로 헌혈 버스가 방문한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름, 공동체, 연락처, 주소, 헌혈 참여 캠퍼스’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현장 신청

도 가능하다. 교회 로비에 마련된 헌혈 대기 장소에서 하면 된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2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월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헌혈 버스 3대가 방문한다. 양재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2월 13일(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헌혈 버스 2대가 방문한다.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2월 27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5~6일 진행된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185명(서빙고 115명, 양재 63명, 도곡 7명)이 참여했다. 황호준 성도는

“헌혈 버스가 교회로 와서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임근삼 성도는 “헌혈하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었다”고 고백했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부활절)까지 계속된다. 가까운 한 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해도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4면).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

2022년 목회사관학교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목회사관학교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2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경기도 여주군 마암빌리지에서 열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파트교역자와 해외비전교회 및 협력교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2022년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복음과 목회 리더십’, 유

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복음과 영성’,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 ‘복음과 세상’,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복음과 설교’, 이정선 사모 ‘복음과 성령’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실)는 “2022년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가 복음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아프간 특별기여자 서포터즈 위촉

NGO 더멋진세상이 1월 20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아프간 특별 기여자 ‘서포터즈’로 위촉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초기정착,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실, 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독교 OTT ‘풍당’ 론칭 1주년

스마트TV 앱, 웹 버전 출시, 기념이벤트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이 론칭 1주년을 맞는다. CGNTV는 기독교 OTT ‘풍당’ 론칭 1주년을 기념하며 2월 15일(화) 기독교 OTT ‘풍당’ 스마트TV 앱, 웹 버전을 출시한다. 스마트TV, PC 등 다양한 기기보다 편리하게 기독교 OTT ‘풍당’을 즐길 수 있다.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론칭 1주년 이벤트도 개최한다. 시청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풍당 어워즈’, 풍당 오리지널 영화 ‘더 워크 시청인증 이벤트’, ‘인

스타그램 챌린지’, ‘본인인증 이벤트’가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2월 15일부터 기독교 OTT ‘풍당’ 앱과 인스타그램, CGNT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OTT ‘풍당’은 양육, 영화, 다큐멘터리, 예배 및 찬양 등 1만9천여 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콘텐츠 60개를 업로드한다.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8만 명, 230여 개 네트워크 교회가 이용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⑥ 신임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와 함께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위하여

신임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의 포부와 다짐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신임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성북공동체)다. 많은 성도가 당회(堂會)가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회는 교회 전체의 행정과 처리(治理)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단위이다. 당회서기는 온누리교회의 회칙, 교회 정관, 예산 심의 등 주요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투표로 결정하고, 잘 시행되도록 성도와 목회자들을 격려 및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홍성호 장로는 “당회장님과 당회원들, 당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와의 일문일답.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격리되거나 소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극복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였고, 올해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저는 이 표어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임 당회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마다 항상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당회서기로 선출되면서 부담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부담과 염려들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부담되는 일을 안

하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평안은 누리기 힘듭니다. 당회서기는 분명 제 능력에 넘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기대와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나 목회자에게 직분이나 사역 제안을 받으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회와 당회서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신임 당회서기로서의 포부도 밝혀 주십시오.

“당회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처리(治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교리에 따라서 어떤 사안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업무도 담당합니다. 직분자를 선발하고, 교회 예산과 결산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처럼 당회는 교회 전체의 행정과 처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단위입니다.

당회서기는 당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하는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건 상정과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성도와 교회의 주요 기록들을 관리하며,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잘 시행되도록 성도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사실 당회서기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많은 기관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사님들과 함께 일합니다. 당회장인 담임목사님, 당회원인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섬기는 게 당회서기의 역할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당회서기가 되면서 품은 비전이 있습니다. ‘AMA(Acts29 Mission Alliance)’ 강화입니다. AMA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온누리교회 정관과 조직도에도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비전입니다. AMA는 사도행전의 목적과 비전을 같이하는 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서빙고, 양재, 부천 등 10개 캠퍼스 교회가 있고, 해외에는 29개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의 지성전(지점)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해외비전교회의 책임목회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책임목회제는 해외비전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하되 목회와 행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cts29 비전을 기반으로 연합한 조직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숙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온누리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당회, 캠퍼스, 공동체, 다락방, 순, 사역본부, 위원회까지 정말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모두 성숙한 성도님들과 리더십 덕분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미션(Acts29 Mission)으로 연합(Alliance)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도행전의 비전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에서 이뤄지도록,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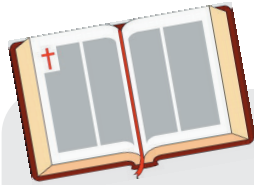
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10대 나이에 영접했지만 수십년 간 믿음없이 살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지각생입니다. 그런 제가 저보다 훌륭한 성도님들을 가르칠 입장은 못 되고, 다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소금과 빛은 감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각과 시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체감(體感)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받은 축복을 세상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지만 소금 자체가 주식(主食)이 아닙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게 하지만 정작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결과를 내게 하는 조연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역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선(善)을 행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체감적인 분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실행하는 성도, 주인공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엄청난 변화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의 발달 속도가 엄청나고, 정치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 전환기에 온누리교회가 바랍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쁘게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삶에서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소금과 빛의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천력을 이루어가야 할 때 야고보서 말씀이 큰 도전과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며 실재가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검증되고 인격 일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험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단이란 금속을 불에 녹여 순수한 물질만 남기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수성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이려면 열매 맺고 역사하는 실천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연단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입니다. 그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를 세우는 시험이 있고,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12절까지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참되고, 실제적이며,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시험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26)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야고보가 ‘흠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에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던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친형제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가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미쳤다고 여겼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시기는 주후 40년에서 45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분류됩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흠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매우 구약적인 용어

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당시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흠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흠어져 있는 유대 12지파’라고 이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배경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또 하나는 가난입니다. 핍박과 가난이라는 시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서신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 야고보서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경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해서 모든 사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개혁이 완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시선은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루터의 오해이자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이라면, 진짜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흠어져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연단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은 훌륭한 영적 교훈입니다. 시험받는 성도에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는 덕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험받는 성도에게 “인내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장은 전체 주제의 핵심 내용을 미리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1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약 5:7-8).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약 5:11).

욕의 인내를 인용합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욕기 전체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욕은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 하지도 않았습니 다. 욕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욕이 배운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승리한 것입니다.

인내를 영어 성경에서는 ‘스테드페스트니스(steadfastness)’라고 번역합니다. 끈질기게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인내 그 자체가 주어입니다. “역사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스스로 참고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라 인내 그 자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 자체가 작용합니다. 인내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목적을 향해 끌고 간다는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말고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내려드리고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역사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 가운데 인내가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이라면, 인생에 여러 시험을 받아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중보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는 성도의 견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당할 때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내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내가 찾아왔고, 그 인내를 따라가다 보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주어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1~3항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때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십니다. 우리가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내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2~4절).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적극적인 태도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최고의 유혹은 죄에 빠지는 유혹도 있지만,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시험을 외면하고 피하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14면에 계속〉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은 사랑입니다!”

이틀 동안 헌혈 버스 탑승한 성도 185명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에 방문한 헌혈 버스(왼쪽), 헌혈 버스 안에서 강희정 성도(서빙고 파워웨이브 교사)가 헌혈하고 있다(오른쪽).

“헌혈은 사랑입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도착했다. 헌혈로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혈 버스에 하나둘 올라탔다.

지난 2월 5일(토)과 6일(일)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서빙고, 양재, 도곡 온누리교회에 헌혈 버스가 왔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는 이틀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 185명(서빙고 115명, 양재 63명, 도곡 7명)이 참가했다.

강희정 성도(서빙고 파워웨이브 교사)는 ‘헌혈은 사랑’이라는 문장에 이끌려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사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크게 없었습니다. 주일예배에서 광고를 들을 때도 별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헌혈 버스를 보는 순간 ‘오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헌혈은 사랑’이라는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보여주신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기에 저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헌혈 버스에 올랐다. 물론 오랜만에 하는 헌혈이라 긴장이 됐다. 하지만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다.

“저는 지금까지 딱 두 번 헌혈 했습니다. 2017년이 마지막 헌혈이라 꽤 오래 지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헌혈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헌혈 버스가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웃음).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함께 헌혈할 수 있는 영과 육이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명돈 성도(한강공동체)도 헌혈 버스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번이 생애 첫 번째 헌혈이었다.

“지금까지 헌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헌혈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헌혈 버스가 와 있어서 그런지 저절로 발길이 움직이더라고요.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아프지도 않더라고요(웃음). 용기 내어 생애 첫 번째 헌혈을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명돈 성도는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

하면서 이웃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몸소 알게 되었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헌혈도 이웃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웃들을 섬긴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가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정 성도도 “헌혈은 건강의 증표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헌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피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귀한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나눔의 날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행사다. 2월 27일(주일)까지 이어진다. 2월 12~13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 2월 13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 2월 27일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방문한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김태형 성도

· 드디어 우리 딸아이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함께 했습니다.
/ 최형서 성도

· 2021년 1월에 헌혈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2022년 1월에 하게 됐네요. 올해에 건강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 고재홍 성도

· 아내랑 같이 헌혈하러 갔는데 아내는 혈액소 부족으로 저만 헌혈하고 왔습니다. 헌혈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 정홍석 성도

· 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 저의 작은 나눔으로 이 땅에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이진선 성도

· 오늘 헌혈 참여했습니다.
/ 윤상복 성도

· 작은 선행으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길.
/ 정미나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 김보영 성도

·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뿌듯해요!
/ 장윤아 성도

·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이진호 성도

· 이 작은 헌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 선하게 변화되는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 정화영 성도

· 헌혈로 생명 나눔에 동참하며 환우들의 건

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 박경남 성도

·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레 22:20).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흠이 없는 것은 저의 피일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저의 피는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의 유일한 흠 없는 것일 겁니다. 낮에 헌혈을 하고 왔네요^^ 건강한 피를 허락하심에 감사, 건강한 피를 나눌 수 있으며 감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작년 이맘때 헌혈에 성실히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주님과 약속 잘 지켰고, 2022년의 초반인 지금 다시금 주님과 약속하며 작성합니다. 헌혈하는 것은 대수롭거나 하찮은 것도 아니고 귀한 축복이자 선물이라 믿습니다. 사랑을 쏙개어 나눌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 최창혁 성도

·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서 소금의 축매제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 김원수 성도

· 헌혈한 피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넘치도록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 이승철 성도

· 헌혈하며 생명 나눔이란 단어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미 성도

· 세상의 소금과 빛은 작은 실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 김수영 성도

· 피가 엄청 빨리 뿜혔어요. 제 피가 많았나 봐요. 남아도는 피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 엄준 성도

· 온누리 피로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돼서 아픈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 나재균 성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1. 창조질서 회복이 답이다! 2. 온누리교회의 노력 3.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창조질서 회복이 답이다!

무너지고 있는 생명과 환경 살리는 방법

온누리교회가 사순절 기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묵상하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간다.

본지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생명과 환경을 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하는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 해답은 창조질서 회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텀블러 사용 권장 캠페인(왼쪽), 낙태 반대를 위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가운데), 차세대와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오른쪽).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질병이 한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경시 풍조'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022년 2월 9일 기준 6,922명이고, 통계청이 2020년 발표한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가 13,965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낙태 건수가 4만 9764건이다. 단순비교만 해도 코로나19보다 생명경시 풍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가 해마다 심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명경시 풍조가 대한민국을 감염시키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는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생명경시 풍조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하면 그만이지!" 탈출구 찾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절반이다. 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비율 말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요인에 의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51.5명이다. 그중에서 25.7명이 고의적 자해(자살)가 원인이다. 고의적 자해는 운수사고 7.7명, 추락사고 5.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0년 15,566명에서 2020년 13,195명으로 고의적 자해 사망률이 15.2% 감소했다"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날마다 3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20대 청년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이 점점 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20대 남성 자살자가 709명에서 849명으로 19.7%, 20대 여성 자살자가 378명에서 622명으로 64.5% 급증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이 너무 쉽게 남용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자살하면 그만이지"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다. 취업과 집값에 치여 한탄을 노려보다 이도저도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20대 청년들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복음이다. 오직 교회만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영향 없이 환경 변화 발생 어렵다

"최근 10년 동안 관측된 일부 고온 현상은 인간의 영향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

지난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6차 보고서의 결론이다.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지구 북반구가 빙하로 덮일 수 있다.

IPCC의 6차 보고서가 환경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을 못 박은 것 외에는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없다. 그동안 여러 단체와 미디어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경고했다. 그런데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과 행동이 '유난'으로 치부됐다.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이어지면서 지나친 피로감이 쌓이기도 했다.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 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환경문제가 믿음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까?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교회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창조질서 회복과 총체적 구원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원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세계 또한 인간의 원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모여 세계선교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 논의한 제3차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땅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고 구속된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과 상속의 권리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主)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방식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모든 창조세계를 포함하므로 '예수는 주시다'라는 복음 선포에는 이 땅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관련된 복음 실천의 문제다.

성경은 창조세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한다. 총체적 선교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는 모두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선교에 포함되므로 이 셋은 모두 하나님 백성의 포괄적인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창조질서 회복은 나부터 시작

창조질서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3월 2일부터 40일 동안 열리는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성, 가족, 출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기독교 OTT '풍당'에서 입양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다.

생명과 환경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다. 온누리교회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좋은 운동이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도 좋다.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는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새로운 도약

제7대 총장 최도성 장로 취임



최도성 신임 총장이 이재훈 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로부터 교기를 이양받고 있다.

글로벌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가 새로운 도약(跳躍)을 예고했다. 최도성 장로(OCC공동체)가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리바이벌(부흥)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리셋(Reset)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월 9일(화) 한동대학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3) 효암채플에서 총장이취임예배를 드렸다. 5~6대 총장으로 섬긴 장순흥 박사가 이임하고, 제7대 신임 총장으로 최도성 장로(OCC공동체)가 취임했다. 한동대학교 이사회, 학생회, 내외빈, 온누리교회 당회 운영위원, 교역자, 리더십(장로, 권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최도성 장로의 총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취임예배에서 이재훈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갈렙이 여호와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한동대학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학이 되어 한다”면서 “이 시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한동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최도성 장로는 취임사에서 “영성 리바이벌, 교육 리바이벌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리셋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가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리바이벌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한동대학교 총장 이취임예배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내외빈, 재학생, 졸업생들이 새 총장이 된 최도성 장로에게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특히 지방이 산다”면서 “경상북도는 한동대학교와 함께할 테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한동대학교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유원식 목사(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장)는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쓰임 받는 대학이 되도록 포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가은 학생(ICT창업학부 2학년)은 “한동대학교가 지켜온 가치들과 앞으로 새롭게 이뤄

나 가야 할 목표를 슬기롭게 설정해주시고, 한동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잘 이끌어주시길 것이라 믿는다”고 고백했다. 교직원 김다복 자매(한동대 졸업생)는 “최도성 총장님과 함께 그려갈 한동대학교가 기대된다”고 했다. 백승웅 장로(사역장로회장)는 “최도성 장로님을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가장 앞서나가는 한동대학교가 되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를 배출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신의 장로(G&M재단 대표)는 “최도성 총장님을 통해서 한동대학교의 영성이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연결되는 장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김영길 초대총장님이 세우신 비전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축하 메시지

“누구보다 한동대를 사랑해주십시오”

“〈갈대상자〉를 읽으면서 감동하고, 한동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한동대학교에 왔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최도성 총장님께서 제가 느낀 그 사랑을 다른 학생들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총장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한동대학교를 사랑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에 버금가는 마음으로 한동대학교를 사랑해주십시오. 한동대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작게나마 총장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김하은 학생(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2학년)

“힘닿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95학번 제1회 졸업생들이 어느새 4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이곳에 왔을까요? 한동대학교보다 좋은 학교, 캠퍼스, 프로그램이 준비한 데 말합니다. 한동대학교에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젊은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힘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실력으로 바꿔보자는 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시작한 꿈이 최도성 장로님께 전달됐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녹고, 어둠 속의 빛이 되는 한동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생들도 힘닿는 대로 최도성 총장님과 학교를 섬기겠습니다. 더 많은 동문이 모교를 후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준호(한동대학교 총동문회장)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늘 ‘나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위해 도구로 써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 송구하고 감사하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지팡이로 쓰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하나님, 한동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쓰임 받는 최도성 총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한동대학교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가 큼니다.”

/ 김영애 권사(故 김영길 총장 사모, 한동대학교 글로벌 후원회장)

*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을 사명과 목표로 지난 1995년 3월에 개교했다. 초대 총장은故 김영길 장로(온누리교회, 초대~4대 총장 역임, 명예총장 추대)다. 개교 당시 학사동 2개, 생활관 1개로 시작했을 정도로 재정 및 환경이 열악했다. 그럼에도 열악함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적 사랑으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배출하는 데 힘썼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 주자’ 등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했다. 현재 13개 학부(인문사회계열 6개, 이공학계열 7개), 대학원 3개(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규모, 4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취임사



최도성 장로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

통해서 한동대학교를 리셋(Reset)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되시는 ‘크리스천 대

한동대학교는 갈릴릴에서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의 도전을 회피하면 한동대학교는 하나의 지방대학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한동대학교는 도전이라는 바람을 타고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과감한 리바이벌, 부흥을

학’,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섬길 ‘학생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영성 리바이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며,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계시된 비전에 불붙리면 한동인들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다시 부흥할 때!

‘교육 리바이벌’도 필요합니다. 지식의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공으로 구분되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맞아 한동대학교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가 대학교육 혁신의 선구자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개척해야 합니다. 영성 리바이벌과 교육 리바이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정직과 성실과 긍휼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다시 부흥할 때입니다. 한동대학교의 리바이벌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부흥을 일구어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어주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용사로 배출하는 한동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비전에 이끌리면 기적을 봅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불가능이 현실이 됩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19년 CGNTV ‘하늘빛향기’에서 SNS 작가 부부를 소개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햇살콩’ 부부(김나단, 김연선 작가)다. 10만 구독자,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들 부부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줬다. 그때 그 햇살콩 부부가 지난해 11월 국내 1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햇살콩 부부의 사역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SNS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국내 1호 SNS 선교사 ‘햇살콩’ 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교사 파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좋아하는 작가 ‘햇살콩’ 부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선교사 파송을 준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SNS 계정에 매일 올려주는 말씀 묵상이 참 좋았는데 선교지로 떠나면 작품을 더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선교지 이름이 이상(?)했다. 파송 받은 선교지가 SNS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SNS와 선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를 보면서 어색함을 느꼈다. 햇살콩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색함이 사라졌다. SNS는 복음이 꼭 필요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천496만 명. 우리나라 SNS 이용자다(2021년 4월 기준).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가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9.3%나 된다.

SNS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악플, 루머, 자극적인 글과 사진이 난무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과 디지털 성폭력까지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김나단, 김연선 작가 부부가 ‘햇살콩’이라는 필명으로 SNS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했다. 햇살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라는 뜻이다.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햇살같이 싹기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

햇살콩 부부는 2015년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SNS 계정에 올렸다. 말씀 묵상이 담긴 글은 남편 김나단 작가가, 말씀과 어울리는 그림과 캘리그래피는 아내 김연선 작가가 작업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SNS 계정에 게시했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SNS에는 세상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SNS를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상처 입히는 글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복음 선포가 너무 없는 SNS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SNS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저희 부부의 달란트를 살려서 글과 그림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햇살콩 사역이 열

매를 뻗었다. 햇살콩 부부가 올리는 말씀 묵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매일 14만 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는 사람, 남들과 비교당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등이 저희 부부가 햇살콩 SNS 계정에 올린 말씀을 읽고 연락을 줍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햇살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했다. 한번은 이단에 빠져 도움을 요청했던 청년을 도왔다.

“하루는 햇살콩 SNS 계정에 밤늦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청년이 다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단인 줄은 알지만 이미 가까워진 상황이라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다. 곧바로 이단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청년과 연결해줬습니다. 얼마 뒤 그 청년이 상담을 잘 받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작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7년, 하루도 쉬지 않고 묵상 그리고 나눔

햇살콩 사역을 하면서 보람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영적전쟁이 치열했다. 재정적인 유혹부터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를 버티기 힘든 날도 많았다.

“햇살콩 SNS 계정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 유혹이 있었습니다. 광고 글 하나에 몇십만 원을 제시하는 재정적인 유혹부터 햇살콩 사역이 우리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메시지를 받을 때였습니다. 딸 아이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국제복음선교회(WEM)에서 SNS 선교사로 파송 받은 ‘햇살콩’ 부부(김나단, 김연선 작가, 사진 가운데).

햇살콩 부부는 그 어려운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다. 더욱 말씀에 매달리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다. 하나님은 햇살콩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한층 성숙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겪는 유혹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묵상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햇살콩 부부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SNS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매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햇살콩 사역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매일 복음의 씨앗을 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있던 날도,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낙심하며 눈물 흘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김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SNS에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햇살콩 사역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국제복음선교회(WEM)에서 SNS를 꼭 필요한 선교지로 여기고 지난해 11월 햇살콩 부부를 SNS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렇게 햇살콩 부부가 국내

1호 SNS 선교사가 됐다.

“저희 부부가 섬기고 있던 국제복음선교회에서 SNS를 선교의 영역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SNS 선교는 선례가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제복음선교회에서 저희 사역을 오래 지켜보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선교사가 온 맘 다해 축복해주셨습니다.”

작가에서 선교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햇살콩 부부가 SNS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SNS에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 독자들을 만나 함께 수업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자들과 함께 개척교회 월세 지원, 선교사님들 사역비 지원, 다음세대 성탄 선물 등의 블레싱 프로젝트를 했는데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햇살콩 부부는 더 많은 SNS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청년들에게 권면했다.

“SNS 계정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는 일은 노방전도와 비슷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SNS라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올려 퍼질 때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동참해주시고요.”

햇살콩 인포링크: link.inpock.co.kr/sunny_bean

전문가 기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장기기증, 희생적 사랑의 최고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명이비인
후과,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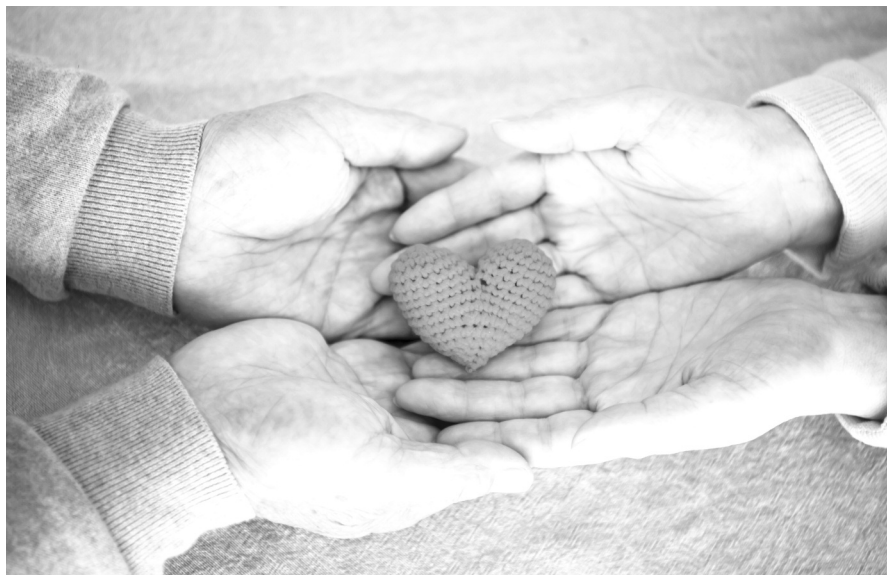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장기기증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송고한 생명나눔이 확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다며 ‘환생(還生)’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의 육신에서 분리된 장기가 죽어가던 수혜자를 살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환생이라고 할 만하다.

장기기증은 희생적 사랑의 최고봉이다. 말 그대로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이유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다. 고귀한 사랑의 결과인 장기이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바로 장기밀매나 이식 관광 같은 불편한 진실들이다. 내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지나쳐 타인의 생명을 단축하는 이기심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장기이식의 역사

타인의 장기(臟器)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장기이식술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954년 머레이(Murray)가 일란성 쌍생아 사이의 신장이식을 성공시켰다. 1963년 스타즐(Starzl)이 간이식을, 1966년 켈리(Kelly)가 췌장이식을 성공시켰다. 1967년에는 버나드(Barnard)가 심장이식을 성공시키면서 뇌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1968년 호주에서 열린 세계의사회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시드니 선언’이 제정됨으로써 뇌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하버드 의대에서 본격적으로 뇌사판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뇌사를 인정하면서 더 많은 장기를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적인 면역억제제들이 개발되면서 생존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장이식을 최초로 성공시켰다. 뇌사자로부터는 1979년에 신장을, 1988년에 간을 이식하는 데에 성공했다. 1992년 췌장 및 심장이식을 성공했고, 1996년에는 폐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 장기이식 수술이 점차 보편화되며 장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불법 장기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장기이식을 투명하게 관리하



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을 통해 불법 장기매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의료기관에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합법화되며 장기이식의 공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2010년부터는 ‘뇌사추정자 신고의무제’를 시행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수급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통계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가 계속 증가해서 2020년 35,852명에 이르렀다.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16년 573명에서 2020년 478명으로 줄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 기증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도 받았다. 뇌사 기증자가 되기 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해서 기증 의사를 묻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장기를 받기 위해서 평균 5년을 기다린다.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생체기증에 크게 의존한다(2020년 생체 기증자 3,918명, 뇌사 기증자 478명). 장기기증 관계자들은 생체기증도 필요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는 뇌사자를 중심으로 한 기증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부족한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장기기증을 독려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원칙을 벗어나면 자칫 기증이라는 숭고한 사랑이 오히려 생명을

을 경시하는 문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망의 시점을 억지로 당기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사망 선고는 통상 심장 멎는 순간에 이뤄진다. 하지만 심장사(心臟死)가 아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오직 장기이식이라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방편이다. 더 많은 이식 수술을 위해 전 뇌사(全腦死)가 아니라 뇌간만 죽은 경우나 식물인간처럼 대뇌만 죽은 경우로까지 죽음의 시점을 확대하자는 주장들이 있다. 이런 주장은 반대해야 한다. 반드시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진다. 뇌사자를 존귀한 인간이 아닌 장기를 제공하는 유기체 정도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뇌사판정을 받았다고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다. 장기를 취하려는 노력보다 영혼이 거하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목표가 선해 보여도 타인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단축하는 것은 악행이다.

둘째,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생명을 내어주는 기증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돌봄은 새 생명을 얻은 수혜자를 돌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2017년 병원이 장기를 기증한 가족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뇌사자 기증이 급격히 줄어든 적이 있다. 사랑의 헌신이 끝까지 미담으로 남고, 또 다른 기증으로 이어지려면 기증자와 유족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족에게 심리상담을 18개월 동안 제공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있다. 기증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는 기증을 자랑스럽게 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가족주의 규범과 전통적인 효 문화는 높은 생체기증률을 이뤄낸 주요 인자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기증자에 대한 묵시적 강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가족 내에서 장기기증을 경험한 한 작가는 “완벽한 이타심을

발휘하거나 철저한 이기심을 드러내야 하는 두 갈래 길에서 강요의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가족 내 기증이 외부로는 미담으로 비치지만, 기증자는 소외된 채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생체기증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미성년 자녀가 가족들의 묵시적 압력 때문에 기증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자발적 기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를 기증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이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기증을 거부해도 괜찮다고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듯 수술하는 병원이 아니라 별도의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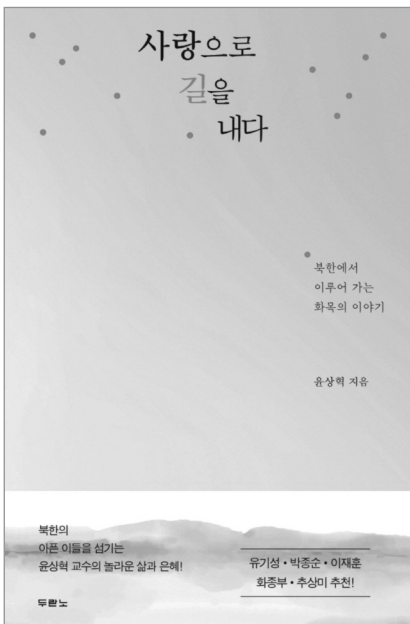
에서 기증자의 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는 것도 자발적 동의를 돕는 한 방법이다. 넷째, 인체에 대한 상업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장기매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죄악이다. 상업주의는 부유한 사람만 먼저 이식을 받게 되므로 공정한 배분을 기다리는 일반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더욱 길게 한다. 이타적인 장기기증이 줄어들어 모든 대기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난한 자가 가진 여분의 장기에 대한 소유권을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기적인 착각을 심어주게 된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라는 악행이 나타날 것이다. 본인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히려 장기매매는 피해야 한다. 상업주의는 장기매매가 아닌 생체 이식재료의 개발과 장기의 기능보존 의학 분야에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을 때만 장기이식술을 ‘환생’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환생(還生)’이라는 장기기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새로운 장기를 받은 이들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고백을 통해 삶에 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제2의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중생(重生)을 묵상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생명을 얻었기에 날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의 기능이 멈출 때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읊조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큰 기쁨으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책 읽어주는 목사

현대판 사도행전



〈사랑으로 길을 내다〉
윤상혁 저 | 두란노 | 14,000원

북한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기독교인이며 선교사로 북한에서 사는 한국인이 있다. 윤상혁 교수다. 한국에서 자란 미국인 아내, 5명의 자녀와 함께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난독증을 앓아 수학 0점도 받은 적이 있었던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 유학에서 척추와 관절 분야 의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나진

선봉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평양의학대학 교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가 북한에서 지낸 14년의 체류 경험은 ‘현대판 사도행전’이라 말해도 손색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다.

장차 북한에서 목회하는 꿈을 가진 필자에게는 이 책 내용이 너무 신기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라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단번에 책을 독파했다.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 북한에서도 기독교인이 살 수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여 주셨다. 저자가 난독증인데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북한에 관심 없던 사람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미국인 아내를 만나 순직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나진 선봉 지역에서 불치병 환자를 기도와 치료로 고쳐 순식간에 유명해져 대학 교수까지 되는 등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 책에는 그 밖의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최고 압권은 평양 봉수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외국인 신분으로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어이, 윤 선교사! 잘 있었어?”라고 인사를 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선교사라고 불렀으니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옆에 있던 지도원이 그 소리를 듣

고 다음 날 조용히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윤 선생, 선교사죠?”라고 했다. 저자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순간 지혜를 얻어 예수님처럼 역으로 질문을 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교란 어떤 것을 말 하나요?”

그랬더니 북한 지도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열거했다.

“선교사는 식민지 시대에 원주민들을 다 죽이는 군대의 앞잡이고, 또 6.25 때 미군들의 유해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것을 보니 기독교인은 명분과 허울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이에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선교사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이곳에도 봉수교회라는 예배처가 있고, 지도원께서도 내가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아시니 내가 선교사라고 해도 맞지 않나요?”

저자의 대답을 들은 지도원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윤 선생, 듣고 보니 그건 참 좋은 선교네요”라고 했다고 한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에서 선교사로 밝혀져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저자를 보호해 주심은 물론 북한 사람에게 선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꿔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들도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한동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많은 생각을 했다. ‘북한에서의 삶은 현대판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것이겠구나. 초대 교회 때 성도들이 경험했던 흥미진진한 기적 같은 삶이 현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통일사역과 미래의 목회가 참으로 기대되었다.

통일사역을 하는 성도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하나님은 이 념을 넘어 사랑으로 모든 장애물을 허무는 분이시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진정한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전부!



〈예수, 보혈, 구원〉
김윤상 저 | 두란노 | 8,000원

님과 동행하는 시간뿐임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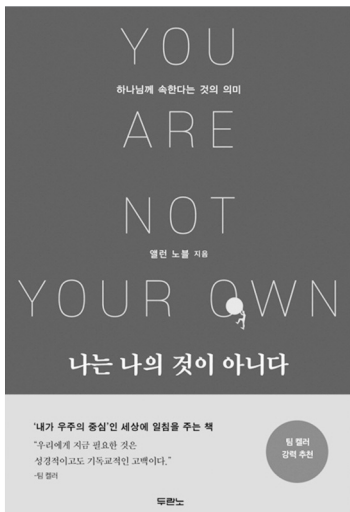
김윤상 선교사가 삶의 위기에서 경험한 특별한 간증을 책 〈예수, 보혈, 구원〉에 담았다.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친다. 인생의 목적,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 멕시코 의투스 선교공동체 선교사이자 책 〈예수, 보혈, 구원〉의 저자 김윤상 선교사는 “예수, 보혈, 구원만이 단 한 번의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전부”라고 말한다.

김윤상 선교사는 4년 전 멕시코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이 파열되고 몸속에 있던 피의 60%가 빠져나간 상태였다.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24일 만에 깨어났다.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 김윤상 선교사에게 실재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것, 누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김윤상 선교사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와 ‘보혈’이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임을 간증한다. 값있는 것은 예수

“내 삶은 주의 것”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앨런 노블 저 | 두란노 | 20,000원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영혼은 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은 16세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다. 앨런 노블 교수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고, 참된 위로와 위안을 얻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세상을 살고 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다. 이런 세상에 일침을 주는 책이 있다. 앨런 노블 교수(오클라호마침례교대학, 〈크라이스트 앤 팝 컬처〉편집장)가 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이다.

책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에서는 내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비인간적인 사회를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를 가르쳐 준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진리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자율적인 개인의 자유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코로나19, 온누리교회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ECCN(Evangelical Christian College Nepal)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2022년에도 Acts29 비전을 써 내려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네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 ECCN(Evangelical Christian College Nepal)을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벤자민 목사입니다. 많은 분이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 이주민예배에서 오랫동안(2006년~2008년, 2012년~2018년) 동역했습니다. 이 기간 신학교와 제 고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계획했던 학업을 마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매월 50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네팔로 돌아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술선수범하며 사랑 말고는 줄 게 없었던 장로님들과 봉사자들의 리더십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양주온누리교회 이주민예배에서 시크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섬긴 것은 제



ECCN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벤자민 목사(왼쪽)와 신학생들.

목회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종교를 가진 이주민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가능성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아주 좋은 제자 양육 도구였습니다.

제가 네팔로 돌아온 이후에도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잊지 않으시고 동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교회가 무너졌을 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제자들이 네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을 찾아가 위로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ECCN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팔 전역에서 교회 개척을 꿈꾸는 청년들이 ECCN의 문을 두드

렸습니다. 학생 30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ECCN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과 동역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임현태 장로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민문기 장로님 등이 네팔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강의와 간증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몇 분은 신학생들과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목회철학 등을 ECCN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ECCN 학생들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작은 인연을 잊지 않고 계속 동역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CCN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동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CCN 학생들에게는 많은 강의와 기도, 멘토님들이 필요합니다.

/ 벤자민 목사(네팔 ECCN)



코로나19, '아웃리치'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JDS(예수제자학교) 아웃리치 간증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

지난해 JDS(예수제자학교) 서빙고 주간반을 신청했다. JDS 수업과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야말로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

JDS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다. 암 투병 중인 나를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엄마에게 아웃리치를 가야 한다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웃리치 출발 일주일 전에야 아웃리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가 강하게 반대하셨다. 서로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나는 이 사실을 팀장님과 조원들에게 나누었고, 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한 분 두 분 함께 기도하겠다고 대답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 뒤에 하늘나라 군대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엄마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내가 보내줄 테니 너는 남은 기간 즐겁게 아웃리치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 덕분인지 다음 날 잠에서 깰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 정말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이었다. 그리고 기도도 응답되었다. 엄마가 “잘 다녀와라”



지난해 JDS 서빙고 주간반이 김포M센터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고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기쁘고 흥분한 마음으로 JDS 아웃리치 현장으로 떠났다.

아웃리치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정신없었다.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 없이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기만 했더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녹초가 되었다.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 피곤한데 잠도 오지 않았다.

아웃리치 둘째 날부터 아이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첫날과 다르게 말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했다. 기도한다고 옆드려 있는 모습이 어찌나 예뻐던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날과 다르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아웃리치 준비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며 웃으며 말하던 어느 자매님 말씀이 생각났다.

JDS 아웃리치 마지막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예민해져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그간의 피로가 누적됐는지 아침부터 일이 하나둘 생기더니 급기야 감정적인 일들이 쏟아졌다. 기도와 격려로 그 위기를 이겨냈다.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보듬고, 팀장님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롤링페이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힐링의 시간으로 아웃리치를 마무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JDS 아웃리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아이 수수와 9명의 미얀마 아이들(엘리아자, 모위, 데위루트, 제임스, 나나, 헨리, 루이, 뿌이, 보이리안), 본인 몸도 건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 김명경 성도(JDS 서빙고 주간반 수료)

“QT가 더 좋아졌어요!”

차세대 ‘QT하고 고구마먹자’ 2,582가정 참여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QT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 먹자’ (이하 ‘QT하고 고구마먹자’) 덕분에다.

최범규 학생(서빙고 초등2부)은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여하면서 QT가 더 재밌고 좋아졌다”면서 “앞으로도 QT와 말씀암송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김주안 학생(서빙고 유년3부)은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가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QT하고 고구마먹자’는 방학 동안 차세대들이 가정에서 건강한 QT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월 3일까지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2,582가정(서빙고, 양재 기준)이 참여했다. 가정에서 QT하고 말씀암송하며 모은 스티커판 제출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스티커를 모은 날짜를 계산해서 고구마 간식을 가정으로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스포츠선교 빌드업을 위한 세미나

스포츠선교팀, 공사랑, 선교사 등 20여 명 참석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이 ‘스포츠선교 빌드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주일) 줌(Zoom)으로 열린 스포츠선교 빌드업을 위한 세미나에는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공사랑 임원, 이창수 선교사(감비아), 이철희 선교사(몽골), 사토 목사(혼고다이교회, 리브소나타 협력교회), 부천FC 경영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축구선교에 대한 토론과 사토 목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사토 목사는 김진국 선교사

(육상)와 함께 혼고다이교회에서 운영 중인 에스페란자 축구팀을 소개했다. 사례 발표에서 사토 목사는 “말씀, 나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스포츠선교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선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에는 선교사들과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탁구선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 개강

한국어선교 교사도 모집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가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수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비등록교인도 수강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회원가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문의: 010-

3290-4506

한국어선교학교 실행팀에서는 ‘한국어선교 교사’를 모집한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이다. 대상은 한국어선교학교(1~7기) 수료자 및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자, 초등교원 자격자(국어교육 경력)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2720-7152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3월 12일부터 지원자반, 코치반 온라인

아름다운 동행 지원자반과 코치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동행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회복과 재정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성경적 가정원리를 따라 새로운 가정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름다운 동행 지원자반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교재비 포함).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은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9041-5538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2차 신청

2월 13일까지 20% 할인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정기구독 2차 신청을 받는다. 2월 13일(일)까지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한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정기구독 가격(48,000원)의 20%를 할인해준다. 할인 가격은 38,400원이다. 정기구독 발송이 시작되면 취소가 어렵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정기구독 신청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기재된 신청링크 또는 두란노 정기구독센터 홈페이지(www.duranno.com/subscribe)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078-3200

기쁨의 샘 참가자 모집

주제별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비 별도).

기쁨의 샘은 심리치료의 유익, 한계,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의식(自意識)에서 주의식(主意識)으로’, ‘일반 기도에서 말씀 기도로’, ‘인지적 반응에서 성경적 상황반응으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반복적 우울감, 중독, 정서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10-5150-0556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 모집

서빙고 주간반, 수원 저녁반 신청

2022년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s School: JDS)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주간반 3월 3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양재 주간반 2월 24일(목), 저녁반 2월 26일(토), 수원 저녁반 3월 5일(토) 개강한다.

예수제자학교에 참가하려면 수강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서빙고 주간반 2월 18일, 수원 저녁반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간반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반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주간반은 여성만, 저녁반

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입학신청서와 교역자 추천서를 작성해서 각 캠퍼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예수제자학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문의: 02-3215-3625, 3220

故 육동건 장로 천국환송예배

일대일제자양육과 어린이 일대일양육사역에 힘을 쏟아온 육동건 장로(이촌공동체)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지난 1월 25일 소천했다. 향년 67세.

지난 2월 11일(금)故 육동건 장로 천국환송예배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리더십,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했다. 천국환송예배는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 기도, 장로합창단 조가(弔歌),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망을 이긴 승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육동건 장로님은 귀한 성도이자 장로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육동건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소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사역)는 “일대일제자양육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에 헌신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훌륭한 리더를 잃어버려 아픔이 크다”고 했고, 김형중 장로(이촌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 육동건 장로님을 먼저 보내서 슬프고, 남은 가족들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현혈 사진, 현혈증 제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아주 특별한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이 구입한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준다 (일부 품목 제외). 현혈 인증 사진이나 현혈증을 보여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할인이벤트는 4월 17일

까지 이어진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10%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의: 02-796-2310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 모집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요일 저녁반, 월요일 오전반, 월요일 저녁반,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이 개강한다.

일요일 저녁반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월요일 오전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전 10시, 월요일 저녁반 3월 7일부터 4월 25

일까지 오후 7시 30분, 목요일 저녁반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반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1만 5천 원 문의: 010-3798-7948

■ 유아세례 간증



/ 자녀 이주안, 부 이준원, 모 김예지

사랑 많고,
사랑 베풀 줄 알기를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아이를 갖자고 상의하고 계획했다. 결혼 다음 해 여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당연히 원하면 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한 마음이 생겼다.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정한 계획대로 되기만을 바랐다. 화개하고 반성했다. 3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간절히 아기가 생기기를 바라며 간구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을 때 비로소 아이가 생겼다.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진통이 왔다. 하루를 꼬박 넘기는 힘겨운 진통 끝에 주안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무 일 없이 열 달 동안 잘 자라준 주안이가 고맙고 신기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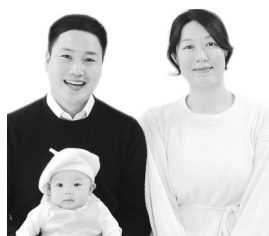
주안이를 낳고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하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아이가 탈장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셨다. 내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갖난아기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다. 추운 겨울이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기가 너무 걱정됐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병원에서는 만약 탈장이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전신마취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일이 정말이지 태어나서 가장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시간이었다.

일주일 뒤 걸으려는 탈장이 의심되었는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노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로 잘 양육하겠다고 말이다.

주안이가 만 세 돌을 맞이했다. 그동안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리고,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화가 많이 나서 억누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체험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가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마음이었구나 싶다. 세 돌까지 아이를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주안이가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사랑 많고, 사랑을 베풀 줄 알기를 기도한다.

■ 유아세례 간증



/ 자녀 이은호, 부 이두란, 모 이은경

나의 고백이자 은호의 고백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몰랐다. 초등학교 5학년 4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시며 일상을 힘들어하셨다. 어머니는 주기도문을 알고 있던 큰누나에게 주기도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종이를 가슴팍에 품고서야 악몽에서 벗어나시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셨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다.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 모임 중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육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어졌다.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막상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대

로만 행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호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다.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 한쪽에 두혈종이라는 큰 혹이 생겼다. 배꼽 탈장이 올 정도로 배앓이가 심해 고통스러워했다. 또 한쪽으로 고개가 기운 사경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배앓이와 두혈종을 고쳐주셨다. 사경 치료는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완전히 치료해주시길 줄 믿고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고백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처음 드리는 은호의 믿음의 고백이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들 은호에게도 참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 비전통독 수료 간증



/ 양수연 성도(분당B공동체)

공동체의 기쁨을 알다!

비전통독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 게으름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침체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영적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혼자 말씀을 지속해서 읽는 게 쉽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아이스쿨에서 비전통독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비전통독은 16주(90일) 동안 성경일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에 읽어야 하는 말씀의 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읽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은혜였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임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6).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비전통독에 참여하면서 말씀의 중요성과 힘, 능력을 깨달았다. 매일 부여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

으려 했다.

비전통독에 참여하면서 내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공동체에 정착한 것이다. 청년부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순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서 순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참여하더라도 소극적인 자세로 순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 비전통독에서는 같은 조끼리 매일 성경을 읽으며 격려해주고, 온라인(Zoom)으로 만나서 일상의 고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이 변했다.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비전통독에 참여했던 90일 동안 언니처럼 세심하게 섬겨 주신 조장님과 조원들 덕분에 믿음 안에서 만난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분당B공동체에 있는 순에 새롭게 속하게 되었다. 그동안 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참여했었는데 이번 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 대만 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 스태프 간증



/ 정응규 선교사(대만)

‘선교대만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두란노해외선교회가 대만의 중화복음신학교(원장: 허드슨 테일러 5세)와 사역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대만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초청해 온누리교회 선교를 소개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대만 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년여 준비 기간을 갖고 어떻게 대만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안내할지 고민했다. 먼저 대만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비전을 나누고 선교세미나를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대만 교회 리더십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 모두 초대에 응해주셨다. 일찍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셨다. 한 자리에 모인 대만 교회 리더십들은 “이제는 대만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했다. 너무 놀라고 흥분됐다.

대만 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현장과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김홍주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의 교회론과 목양체계, 온누리교회의 선교

적 모델 등을 소개했고, 한충희 목사님은 난민 사역 등 온누리교회 여러 선교 사역을 소개하셨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대만 교회의 목회자들이 크게 감동한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 온누리교회는 세워질 때 선교하는 교회였다. 둘째,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 더욱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셋째, 온누리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모든 성도가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다. 넷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이다. 선교는 돈이 많고 인적자원이 많으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척할 때부터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동력이다.

대만 온누리교회 선교세미나 덕분에 새로운 선교운동의 시작이 되고 있다. 대만 목회자와 선교단체 리더십 85명이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 대만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건강한 선교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진행될 ‘선교대만운동’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한다.

장로칼럼

삼손의 약점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소라(Zorah)땅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삿 13:2-3).

삼손이 댁내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대 팔레스타인 민족의 하나였던 블레셋의 딸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반했다. 삼손은 막무가내로 결혼을 고집했다. 댁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지라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였다. 결혼을 위해 다시 댁나로 가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가 그대로 있다. 죽은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다. 삼손은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다.

삼손은 신부의 집에서 당시 혼인 잔치를 열었다. 삼손은 들러리 청년들과 내기를 걸었다.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맞추라는 문제를 냈다. 블레셋 청년들이 3일 동안 답을 하지 못하다가 신부를 협박해서 ‘강한 것은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라는 답을 알아냈다.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블레셋 군사 30명을 죽이고 노략질한 베옷과 겹옷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줬다.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렸다. 얼마 뒤 결혼식에서 자기가 한 일이 후회된 삼손은 선물을 가지고 아내에게 돌아갔다. 장인이 삼손을 막아섰다. 삼손은 크게 화를 내

며 여우 3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매듭에 불을 붙여 밭으로 내몰았다. 불이 번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몽땅 타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가를 벌하자 삼손은 더욱 화가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 삼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싶지 않아 삼손을 넘겨줬다. 삼손은 레히에 도착하자 밧줄을 풀고 나귀의 턱뼈로 1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

가자 지역으로 간 삼손은 들릴라라는 매춘부에게 빠진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일천일백 은을 주겠다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라고 부탁한다. 들릴라는 끈질기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고 이제껏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힘을 잃게 한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을 잃고 무거운 맷돌을 돌려야 했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신 다곤을 찬양하며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삼손은 한 소년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사람들의 조롱 소리에 삼손은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년에게 ‘몸을 기댈 기둥으로 대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온 힘을 다해 신전 기둥을 무너트리고 블레셋 왕, 고관 등 신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죽었다.

삼손은 친근한 인물이다.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들도 삼손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삼손의 잉태를 그린 〈마노아 아내에게 알립〉(틴토레토), 〈삼손의 결혼식〉(렘브란트), 사자와 싸우는 〈청년 삼손〉(레옹 보나), 나귀 턱뼈로 천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인 〈삼손의 승리〉(귀도 레니), 〈삼손과 들릴라〉(루벤스), 〈삼손의 복수와 죽음〉(카롤스펠드) 등이 있다. 삼손의 인생을 묵상하며 나의 약점이 무엇일까 묵상하면 어떨까.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행복의 조건은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둘째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셋째 꿈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표지향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남자들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해한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한다. 특히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남자들은 산더미같이 쌓이는 일과 대인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에 빠져든다. 특히 사추기(思秋期)에 들어서면 남들이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두려움과 강박증으로 인해 더 빨리 앞만 보고 달리다가 탈진하기 일쑤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취에 대한 욕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각종 심인성 질환, 두통, 근육통,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대장 증후군 등의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긴장 상태가 지속하면 불면증,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개 세 가지다. 첫째,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직장에서의 적응 문제, 좌절, 업무에 대한 과잉 부담 등이다. 둘째, 생물학적 원인으로 생물학적 리듬, 식습관과 심한 소음 등이다. 셋째, 성격적 원인으로 성취지향적이며 완벽주의적이고 시간 강박적인 성격,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비하나 예민한 성격 등이다.

몇 년 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남성의 40~50대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서울 백병원의 강재현 교수는 중년 남성의 사망률을 부추기는 원인을 ‘대사증후군-메타볼릭신드롬’이라고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비만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기는 각종 성인병을 말한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가정은 건강의 원천이다. 건강의 중심에는 안식처이자 안전 기지인 가정이 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 지지가 있다면 남편들은 웬만한 스트레스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남자들은 아내가 건강을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라며 잔소리쯤으로 여긴다. ‘지금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다가가 건강을 돌봐야 한다.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식탁 앞에 건강 관련 심계명을 붙여놓거나 건강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해두었다가 남편과 함께 읽으면 좋다. 무엇보다 가정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부부관계에 신경을 써주는 일이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식사하는 그림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조미료 투성인 세상의 음식으로부터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다. 어느 목사님은 신부에게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주례를 서주신다고 한다.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는 남편이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고, 내가 죽을 위해 가슴을 펴고 세상을 이겨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내는 남편 건강의 원천이다.

신앙에세이

이준인 목사
(갈렙청년부)

본질(本質)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어떤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교회의 본질이란 교회가 참교회 되게 하는 고유한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란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고유한 어떤 특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고, 회복할 수 있다.

첫째, 본질은 가장 유익한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본질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이었다.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태신앙임을 자랑했고, 베나

민지와 출신의 히브리 사람임을 자랑했으며, 율법을 내세우고 자신의 최종학력과 업적을 자랑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던 바울이 갑자기 다른 고백을 한다.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로운 것으로 여간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울이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완벽한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으면 개명하기까지 했겠는가.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바꿨다는 것이다.

둘째,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어주는 것이다.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꾸 뭘 준다.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좋아할 것 같아서, 행복해할 것 같아서 자꾸 준다. 불편해도 상관없다. 준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받으려 하지 않고

주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를 ‘사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받을 생각부터 한다. 이 사역을 하면, 선교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부터 생각하게 된다. 교역자로서 청년들에게 은혜로운 사역을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도 분명 변질됐다. 예수님은 철저히 다 주셨다. 목숨까지도.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랑한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본질은 살리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것이 무엇이든 살리기 위한 것이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은 없다. 바울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단순한 죽음과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활을 위한 죽음, 살리기 위한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본질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질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죽음과 고난도 믿음의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직장을 살리는 생각이 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가정을 살리는 생각이 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나라를 살리는 생각이 난다.

이 땅은 예로부터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다. 수많은 풍토병과 전쟁, 이념 갈등 등으로 당시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한반도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주변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생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땅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삶의 본질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본질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풍파에도 흔들림 없고, 불이 불어도 타 없어지지 않은 거룩한 떨기나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본질(本質)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시험을 이기는 인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유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둘째,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5절). 시험을 인내하는 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어떻게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지혜가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은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약 3:13).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약 3:17).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적 위치를 자랑하라”

셋째, 인내의 자세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적 위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

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9~10절).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높은 위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높은 영적 위치인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매우 낮은 영적 위치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도록 할 때 부가가져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주는 시험보다 부가 주는 시험이 더 위험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 가운데 인내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인내가 가져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치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박선배 송흥섭 안태현 이 암 전재연 윤성호 한성진 윤성호 ■ 강서 김영채 원영주 민다혜 김순옥 오경자 김규옥 황용택 고경환 ■ 강촌 갈현아 정연경 이영주 한미애 이종구 최선준 이한별 조항집 정대환 유 혁 ■ 고양은평 고태희 조정구 김선경 계문순 김유미 김승연 박민희 김지연 이국희 남궁호선 이종을 안영철 전지혜 문미옥 조민기 조성래 조성희 김지영 최하은 안정희 ■ 관악금천 신희망 송성숙 이정미 박인숙 장혜진 고혜선 정연민 한순혜 ■ 광명 노월영 안은선 함은영 장서운 ■ 김포 김시광 정준영 김해경 이영심 노나정 이영심 ■ 노원 박혜윤 홍혜진 유남옥 김정필 ■ 동대문중앙 김민욱 김선애 김영순 김옥숙 이상주 이동현 전종근 최용일 조경화 김수미 ■ 동작 강지혜 신동숙 김지연 이은숙 김지혜 서 윤 윤순환 류석형 최광지 이한주 함경진 성지은 ■ 마포 김지훈 채강석 류지철 홍광식 박광호 김재익 박인화 이경옥 배경숙 권순남 서인혜 최현경 송희순 윤영옥 안다형 정인경 이종도 김형일 조은정 호정옥 ■ 북누리 임성옥 박현숙 ■ 서대문 강수현 김수정 김나원 허영희 김지영 최진옥 송현주 권현우 정계승 차영자 ■ 서빙고 김희연 남지연 이수운 김영희 임선아 차현주 황성민 김철환 ■ 성동광진 김영권 장창근 김종옥 류기선 남소연 김제영 박성혜 강해숙 이선열 경국현 이양숙 서경주 이용재 정광호 이유은 홍나인 ■ 성북 김미소 윤연옥 김장로 최주관 마유미 이은경 양영옥 고준광 윤은정 이애리 최수진 박아실 ■ 신용산 기호찬 이용수 김남이 조진영 김민수 장한웅 김은진 마성오 신여명 손연숙 이관실 신현숙 이서현 유재은 조은지 박영정 황규태 이승은 황호규 차상윤 ■ 양천 양지원 김득신 양영은 윤화순 유지희 김미경 장노옥 윤현경 정경단 김혜윤 ■ 여의도 강국진 전구영 강대수 장세영 홍순금 홍정희 ■ 영등포구로 김영신 빙지영 박우영 고현우 박진희 권영민 서윤경 이소영 선민기 이범규 송인순 박정숙 이가영 김동희 이문정 김은영 이서현 김성민 이정아 최지은 이준한 최상신 정상호 김홍집 황인영 김희진 ■ 용산 구 현 정세옥 김부연 박은경 김승혜 신선호 김혜균 윤영지 김홍렬 박광식 이경아 손수현 ■ 장윤정 유미란 정나영 주명숙 조영신 윤석환 최현석 최다니엘 ■ 이수 고은지 송주영 김광진 김택성 김원영 박진웅 박미정 한영준 이승기 예상옥 조민경 선혜린 ■ 이촌 김용우 김 준 김태연 서미소 문정혜 선우정 안지현 이주숙 엄선호 김은경 이영석 문 찬 이준완 신동필 정찬용 한미연 최용상 김형국 하승호 정지태 ■ 일산 김영숙 정인숙 ■ 중종로 박경준 진철규 박은규 이은숙 예소라 김현아 이규정 김익래 이현철 박제한 최재권 손원민 ■ 한강 김희성 고옥경 박연주 이재순 신동윤 이원신 신현아 이지나 오세인 문경숙 이강자 김기행 이지형 장서환 정창희 이주연 천보경 이성미 ■ 한터 장진평 이선경 ■ 공동체없음 고종희 최지은 김은아 안미숙 ■ 김진영 강은주 나하은 장정은 박현주 이숙영 신주혜 박재희 윤형원 배은하 이주희 김미정 장혜주 장경희 조성희 최지은 조준기 서영찬 한성욱 방 옥 ■ OCC 김희우 김준홍 최보윤 이주현 ■ S브릿지 고은영 김은숙 고하나 상혜정 김보미 김수민 김선경 이은자 김선미 이정수 김혜정 방종애 신유나 이태원 이신애 최유경 장유희 김희영 정유선 정영문 조근배 박남식 차주영 김현주 ■ 양재 ■ 강남A 김신정 안영진 김태은 이도연 김하영 오가전 남기직 윤원기 배계령 조영미 안현남 한주미 최혜림 김수완 ■ 강남B 김희성 박소영 방성준 최준순 성지혜 박선향 안연숙 소현숙 안정미 최정은 오승아 박소영 유 리 한은주 이상봉 이인정 정종임 홍윤정 정해정 소현숙 ■ 강남C 이종삼 박경열 최은희 박정원 ■ 강남D 박정희 김수진 신재순 서원석 장정인 홍현정 ■ 강남E 김재인 김수현 박찬규 조용훈 송미현 임경희 ■ 경기IA 이향란 조경희 ■ 과천의왕 김소연 민보라 박 민 임남섭 장동진 정원석 ■ 도곡 강민정 권영선 유미선 주소희 이상원 이동우 조재성 임봉자 ■ 분당B 박소현 윤선영 박준권 박승병 백진영 윤명자 채선희 김인덕 ■ 서초A 김유석 이지는 박현서 최지영 신정미 손금미 장준양 지상묵 조영상 문대홍 ■ 서초B 김은숙 이경화 박창수 오미숙 이경연 이경희 장혜진 한나영 한은교 송기선 ■ 서초C 강일화 김영옥 교교준 이진영 유미영 정수진 정선미 김명숙 차보경 이정화 ■ Bridge33+ 한소영 이미연 함옥경 김지경 ■ 서초D 김태린 박지은 김태인 박두병 박남용 김태권 ■ 송파A 김동진 유장희 김병윤 이병일 김진섭 차춘근 김한나 강선미 김희준 서현진 명혜리 이순주 모종선 정현숙 박경임 윤길자 박창현 김인선 송가영 황지영 안지원 서현진 이경나 신윤옥 이승희 성하영 임호리 박하연 장지은 최인향 정가영 이희정 ■ 대학城南 ■ 길 이미랑 이문희 ■ 여호수아 강민우 김봉석 공은지 이기용 김금남 백봉호 김민지 노주원 김수현 서수정 김주연 김 희 김지은 강경애 김태영 김은경 김하영 이예지 도영희 장화선 신민정 송현정 염아자 박정은 오세은 윤선영 유호명 이아영 이교은 박민경 이보인 김민주 이승홍 양관석 이애라 배한나 이정혜 객재연 이하경 이진숙 임민주 이상형 ■ 특별한초대 이호선 강민균 ■ 푸른누리 강우석 이병후 김보람 이승미 정혜운 홍혜경 최현형 임동연 ■ 하늘 김예진 신윤옥 박상민 변대섭 서진주 서경미 ■ 허브 권소현 안현주 ■ 권아람 김혜진 김동일 오준환 김성훈 김 준 김수현 권혁희 김예린 김기현 김윤정 임은희 방의현 이승희 백지혜 이홍미 손민주 변애정 손수빈 송은혜 신동환 김권일 신은서 이준경 윤예영 강진경 이혜원 윤예리 장영준 이종환 정혜린 홍성임 주하나 이상희 ■ CH PLUS 김은영 장후선 ■ J4U 김영철 국궁대 김우리 이소연 우예은 이혜미 유하은 한혜경 정다운 서은아 정민수 정수현 정민나 김선하 조성윤 김재우 하윤해 신선이 ■ SNS 권민정 박은진 김난새 장혜원 김다미 김인수 김선화 나지나 김수연 조혜원 김유정 장미숙 나경은 김보라 노병욱 윤성호 명난희 이정선 서혜연 김혜지 손주연 왕진희 송주란 김민지 이다솔 유영희 이민주 오미영 이보라 배은화 이선화 김라현 이수연 서오숙 이정미 주명숙 허민희 염미영 ■ W 박극요 유시풍 박성준 조성훈 ■ 안도현 이광건 우유경 이애연 이빛여울 김미영 ■ 진서윤 황지원 한미쁨 오금석 ■ 공동체 없음 김종태 이종환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서빙고 2월 20일(주일) 3부 예배 양재 2월 20일(주일) 2부 예배 수료대상자는 예배 30분 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수료예배대상자: 21년 10월 1일~22년 2월 8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서빙고 ■ 김철희 목사반 경재연 김경수 김명지 김서영 김성국 김성오 김윤희 김은진 김은혜 김정원 박성숙 박지호 박찬규 서용호 신하철 신혜영 안미성 안선희 양경희 양선영 이경아 이민영 이예은 이정민 이창아 이홍민 임미정 장문성 장원복 한기홍 허광범 ■ 변대섭 목사반 권미경 권숙경 김용섭 김현미 김현정 박도형 박요섭 박정현 신수일 여성동 유은주 유정선 유은재 이명희 이승현 이영아 이정옥 이정화 이창현A 이현우 이형순 전정애 황성훈 ■ 김철주 정로반 구연미 권형민 김경미 김병관 김승철 김승현 김영호 김정숙 김행근 김현주 김혜나 김경영 남궁은경 노금희 박재식 신영진 안선미 안수연 안현경 오정화 유신아 윤성혁 윤현지 ■ 이영규 이종희 정호진 조인옥 조현준 한희안 홍계원 황재형 ■ 이동창 이용석 이은주 정영현 정용구 정해일 조윤영 지옥현 ■ 김철주 정로반 구연미 권형민 김경미 김병관 김승철 김승현 김영호 김정숙 김행근 김현주 김혜나 김경영 남궁은경 노금희 박재식 신영진 안선미 안수연 안현경 오정화 유신아 윤성혁 윤현지 ■ 이길탁 목사반 강지화 김민수 김 양 김영희 박종민 신보미 안지영 이미연 이새롬 이시영 이용옥 이진아 정화정 정호분 홍은영 ■ 최용준 목사반 김현지 박동아 송지영 신현영 오영채 윤성은 이근혜 이영란 이진이 이해정 장영은 장유진 조영희 지수빈 차미라 황윤정 ● 양재 ■ 김명현 정로반 김현주 박성혜 서영석 송진호 양성식 이강호																			

크리스천 필수 앱 '풍당'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당 본인인증 하시면
선물을 드려요"



2월 13일 예배 후 CGNTV 부스를 방문하시고
풍당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서빙고, 양재, 도곡캠퍼스 한정



fondant
'풍당' 앱 다운로드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